

|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Ⅱ 제5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5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㉔	2	18	㉑	2	35	㉕	2	35	㉓	2
2	㉕	3	19	㉕	2	36	㉓	2	36	㉔	3
3	㉑	2	20	㉓	2	37	㉔	2	37	㉕	2
4	㉔	2	21	㉕	3	38	㉔	2	38	㉒	2
5	㉑	2	22	㉔	2	39	㉕	2	39	㉑	2
6	㉔	2	23	㉓	2	40	㉕	3	40	㉒	2
7	㉒	2	24	㉔	2	41	㉒	2	41	㉓	2
8	㉕	3	25	㉒	2	42	㉕	2	42	㉔	2
9	㉓	2	26	㉔	3	43	㉒	2	43	㉑	2
10	㉓	2	27	㉒	2	44	㉒	2	44	㉓	2
11	㉑	2	28	㉔	2	45	㉓	3	45	㉓	3
12	㉔	2	29	㉒	3						
13	㉒	3	30	㉓	2						
14	㉕	2	31	㉑	2						
15	㉑	2	32	㉓	2						
16	㉓	3	33	㉑	2						
17	㉓	2	34	㉕	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5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독자가 읽기에 몰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로, 독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독자는 읽은 것에 대한 단기 기억인 작업 기억을 활용하여 글을 응집성 있게 연결함으로써 내용을 이해한다. 글 내용이 응집성 있게 연결되어야 작업 기억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③ 글자를 소리 내어 읽는 것은 텍스트의 어휘나 내용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몰입 정도는 더 낮아진다. ④ 읽기에서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이 통합되는 것은 배경지식의 활성화와는 관련이 없고 글 내용을 응집성 있게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다. ⑤ 마음속으로 글자만 더듬으며 읽는 것은 독자가 아니라 텍스트 자체의 요인에 의해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2. [출제의도] 학생의 읽기 과정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평소에도 알고 싶었던 것을 읽었고 궁금했던 것을 알아내려고 끝까지 읽은 것으로 보아, 글을 읽는 목적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판생각이 떠오른 것은 몰입 정도가 떨어졌거나 주위 환경이 독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항공기의 최단 경로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과 정각 도법에 대한 설명이 서로 맞지 않아서 학생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② 정각 도법의 개념을 소개하는 앞 문단과 새로운 도법을 소개하는 다음 문단을 비교하여 읽음으로써 이해도를 높인 것으로 보아, 앞서 읽은 것을 활용하여 응집성 있게 글을 읽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입으로만 글자를 되뇌는 것은 텍스트 자체가 지나치게 어려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텍스트 자체의 요인에 의해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해당한다. ④ 책 읽는 중에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진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독자를 둘러싼 맥락에 의해 독해가 방해받는 상황이다.

3. [출제의도] 지문을 읽은 학생의 반응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읽기 능력이 뛰어난 독자라도 독자 자신 혹은 텍스트 자체의 요인이 독해를 방해하는 현상은 흔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읽기에 숙달되었다고 자부하는 학생이라도 독자 스스로 몰입 정도가 떨어져 글과 무관한 생각에 빠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읽기 능력이 뛰어난 독자의 경우에는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 ③ 읽기 능력이 뛰어난 독자의 경우에 몰입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은 실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④ 읽기 성취도를 높여야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해야 읽기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⑤ 어려운 텍스트를 회피하면 읽기 능력이 다시 저하된다는

것은 실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4 ~ 9] 인문-예술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40쪽, 수능특강 248쪽

4. [출제의도] 학생이 작성한 독서 활동지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는 목자 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특정인의 견해를 인용하는 서술 방식을 사용했으나 (나)에는 논지를 제시하고 인용하는 서술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목자의 견해와 대비되는 유가에서의 음악관이 제시되어 있고, (나)에는 유가에서의 음악관에서 더 나아가 조선 후기 문인들의 음악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③ (가)에는 음악에 대해 목자와 유가 사상가들 간의 상반된 입장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나)에는 두 입장을 대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는 '영산회상'을 단힌 구조로 대하지 않고 열린 구조로 합주하였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가)에는 특정 음악의 합주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⑤ (가)에는 목자의 견해에 대비하여 유가의 사상가들이 음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가 소개되어 있고, (나)에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조선 후기의 문인들이 소통이라는 음악 향유 양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가 설명되어 있다.

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자에 따르면 음악은 '예'와 함께 예악의 조화를 이뤄 '예'가 야기한 긴장을 해소한다. '예'는 신분 등의 질서와 규범에 관한 것으로, 본래 차이를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공통의 것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예기』에 따르면 뛰어난 '음'들이 있다고 해도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옳지 않으면 음악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 즉 대중의 심금을 울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예기』에 따르면 소위 나쁜 음악이라 불리는 것들은 사실 '악(樂)'이 아니며, 이는 지나침이 있는 것으로 배척해야 마땅하다. ④ 유가에 따르면 군자만이 음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 군자는 수양을 통해 '덕'을 함양한 이를 말한다. ⑤ 조선 후기 문인들 역시 유가의 근본 취지를 따른다. 또한 함께 즐기며 배우는 것을 말하는 유예로 음악을 익혔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예 연마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6.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특정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음악이 수레나 배처럼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자의 주장이다. 그 전후 맥락으로 보아 음악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생활 안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인력 낭비에 불과한 음악으로 인해 먹고 입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상층과 백성 간의 차별은 심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목자의 입장에서는 음악이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 상층과 백성 간의 거리감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①을 바탕으로 할 때, 음악이 사

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그것이 검약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근거로 반박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성왕이 백성을 위해 음악을 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목자는 음악이 겸애의 정신을 일깨우지 못한다고 본다. 목자 역시 음악이 사람의 귀에 즐거운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치스럽고 백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이다. ⑤ ①으로부터, 목자가 수레나 배를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레나 배의 제작이 인력 낭비인 것도 아니므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풍류는 관악기를 위주로 하지만 해금이나 아쟁과 같은 현악기도 포함한다. 해금이 현악기임은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줄풍류는 방 안에서 현악기를 위주로 하는 작은 규모의 합주이다.

[오답풀이] ① 줄풍류는 방 안에서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연주하는 것이지만 감상자들도 존재한다. 연주자들 간에는 물론 감상자와 함께 소통하는 방식이 줄풍류에 적합한 것이다. 줄풍류에 악인이 참여하기도 했다. ③ 대풍류는 궁의 행사에 쓰인 화려한 합주이다. 줄풍류가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수양을 통해 '사무사'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홀로 연주하는 것은 아니다. 줄풍류는 기본적으로 합주이다. ④ 단힌 구조로 연주한다는 것은 연주가 정해진 것에서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문인들이 정신적 교감이라는 음악의 수용 방식을 터득한 계기가 줄풍류인 것은 맞다. ⑤ 조선 후기 문인들이 신분 등 음악 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들이 유교적 인간상의 완성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첫 문단에 따르면 수양은 조선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 후기 문인들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을 뿐이다.

8. [출제의도] 지문의 관점들을 통해 <보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는 관점을 지닌 학자의 입장이 소개되어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인위적으로 만든 '예'를 통해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입장은 음악이 작위의 실천을 돕는다고 본다. 좋은 음악을 법도에 맞게 배우고 제대로 함께 즐기면 화친을 이루고 이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풀이] 글쓴이의 관점인 B는 조선 후기 문인들의 줄풍류가 음악을 향유하는 양상을 소통의 일환으로 만든 것에 긍정하는 입장이다. 즉 합주에서의 소통이 음악 고유의 참된 역할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줄풍류에서의 소통은 누군가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서로 교감하며 진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거문고의 지휘에 따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B에 따르면 <보기>의 입장은 음악의 긍정성에 동의한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예'에 얽매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답풀이] ① 유가의 사상가들의 관점, 즉 A에 따르면 사람들은 마음에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 <보기>의 관점처럼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유가의 사상가들은 <보기>에 대해, 마음이 인욕에 의해 흐려지는 것이 곧 악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반응할 수 있다. ② A에 따를 때 '예'를 닦는 등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는 <보기>의 관점에 수긍할 것이다. A가 음악의 인성 정화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좋은 음악을 행하여 뜻이 맑아지는 것 역시 수양을 통해 인성이 정화되는 효과와 같다고 반응할 수 있다. ③ A에 따를 때 '예'의 실천에 음악이 도움을 준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A에 따르면 음악은 윤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은 선한 본성이 있는 마음이 '음'들에 실려 조화를 이룬 것이므로 윤리적인 가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음악은 '성'이 발현된 것이기도 하다. ④ B에 따를 때 음악을 통해 화친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관점은 신분에 따라 행할 '예'를 강조한다. B에 따르면 조선 후기 문인들의 음악 활동에서 신분제의 틀을 깰 수 있는 포용력의 근거가 있으므로, <보기>처럼 '예'를 강조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가능하다.

9. **[출제의도]** 고유어를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추구(追求)하다'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의 의미이므로, ㉠의 '누리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0 ~ 13] 사회

1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쪽의 귀책사유도 없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따르므로, 매도인의 책임 없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의 책임마저 없었다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따른다.
[오답풀이] ① 쌍무 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쪽이 동일한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가 관계의 채무를 지기로, 즉 서로 반대급부를 이행하기로 한 계약이다. ② 원시적 불능임에도 체결된 계약은 애초부터 무효라서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약정된 행위를 하지 않아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대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⑤ 채무 이행이 가능한데도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 지체이다. 이행 지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행 불능은 성립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가 위험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잃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고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위험이다. 즉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에 어느 한쪽이 부담하는 위험이므로 양쪽이 동시에 부담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매도인이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하면 목적물 인도의 반대급부인 대금 지급을 청구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대가 위험을 부담함에 있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따른 것에 해당한다. ③ 후발적 불능을 발생시킨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면 매수인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따라 대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④ 후발적 불능이 된 채무에 대한 반대급부는 대금 지급이다. 그런데 매수인의 책임으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해도 대금을 지급하는 불이익, 즉 대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이 해제되면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었던터러 반대급부인 대금 지급도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후발적 불능인 상태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대가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12. **[출제의도]** 지문의 여러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행 지체)의 상황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후발적 불능의 발생에 매도인의 책임이 없더라도 이행 불능이 성립한다. 또한 이행 불능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상황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후발적 불능의 발생에 대해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즉 책임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수령 지체)은 인도되는 목적물을 매수인이 수령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등 수령에 협력하지 않아 채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즉, ㉠은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②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 발생한다고 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이 지체되고 있을 뿐이지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후발적 불능이 되고 나서도 매수인은 얼마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의 상황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이행 불능이 성립하는데,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발생하는 대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⑤ ㉠의 상황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매도인이 반대급부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과실 없는 매도인에 한정된 경우이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매도인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갑과 을이 체결한 영상물 공급 계약에 따르면, 영상물이 목적물이므로 갑은 을에 목적물을 인도할 채무가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지문의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상물 제작 방향과 지침을 정해 주기로 한 을이 약정된 행위를 하지 않아 후발적 불능이 되었으며, 이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정답풀이] 채무 내용에 부합하는 영상물이 제작되지 못했지만 이는 제작 방향과 지침을 정해주지 않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다. 을이 갑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인도할 채무가 있는 갑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여 이행 불능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경우의 후발적 불능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을은 갑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을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목적물을 인도할 채무가 있는 갑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여 이행 불능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경우는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후발적 불능이므로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갑이 채무 내용에 따른 목적물을 인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수령 지체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을이 갑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후발적 불능의 발생에 을의 책임이 있으므로 대가 위험 부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을은 목적물을 인도받지도 못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을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아니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따르게 된다. ⑤ 을이 협력하지 않아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를 이행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이행 불능은 목적물을 인도할 채무가 있는 갑의 고의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는 것이다.

[14 ~ 17] 과학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08쪽

14.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렌티바이러스의 RNA에서 역전사를 통해 만들어진 cDNA가 숙주 세포의 DNA에 삽입된 뒤 전사를 통해 역전사 시의 원본인 RNA, 즉 원래의 RNA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지니는 RNA가 만들어진다.
[오답풀이] ① 렌티바이러스의 외피를 이루는 지질은 렌티바이러스가 합성한 것이 아니라 숙주 세포에서 유래한 것이다. ② 유전자 치료에서 궁극적으로 환자의 DNA에 삽입되는 것은 렌티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아니라 환자의 DNA에서 손상된 부분에 대응하는 정상 DNA이다. 이를 위해 렌티바이러스의 RNA에 목표 RNA를 삽입하는 것이다. ③ 자연 상태의 렌티바이러스에 의한 형질 도입의 과정에서는 바이러스의 RNA로부터 cDNA를 생성하는 역전사만 일어난다. 전사는 형질 도입 이후에 프로바이러스로부터 RNA가 만들어질 때 일어난다. ④ 렌티바이러스의 RNA에서 역전사를 통해 만들어진 cDNA가 숙주 세포의 핵 안으로 진입하면 LTR와 '폴'의 작용에 의해 숙주 세포의 DNA의 특정 부분이 절단된다. 이는 자연적인 형질 도입과 유전자 치료 모두의 경우에 일어난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진술의 이유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렌티바이러스를 유전자 치료를 위한 운반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렌티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숙주 세포의 DNA에 삽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DNA를 역전사할 수 있는 목표 RNA를 렌티바이러스의 RNA에 삽입하면, 그렇게 조작된 RNA와 렌티바이러스의 단백질들을 함께 투입하여 목표 DNA를 환자의 DNA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렌티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사용하기 위해 두 LTR 사이에 삽입되는 것은 목표 DNA가 아니라 목표 RNA이다. 이 목표 RNA로

부터 역전사를 통해 목표 DNA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③ 렌티바이러스는 목표 DNA를 숙주의 DNA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숙주 세포의 단백질이 아니라 자신의 단백질인 ‘폴’, ‘엔브’ 등을 이용한다. ④ 렌티바이러스가 프로바이러스를 거쳐 새로운 렌티바이러스를 생성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렌티바이러스를 유전자 치료를 위한 운반체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은 아니다. 운반체는 환자의 세포 내부에서 새로운 렌티바이러스를 직접 생성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생성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⑤ 렌티바이러스에서 RNA를 추출하여 만든 조작된 RNA가 형질 도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숙주 세포에 ‘폴’과 ‘엔브’를 함께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조작된 RNA만을 숙주 세포에 투입해도 형질 도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렌티바이러스의 ‘조작된 RNA’와 ‘폴’ 그리고 다른 단백질을 환자의 세포에 투입하는 ‘가상의 실험’이 제시되어 있다. 지문의 설명을 바탕으로 ‘폴’과 함께 투입된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조작된 RNA’에 목표 RNA와 함께 렌티바이러스의 유전자도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조작된 RNA’가 환자의 세포에서 어떻게 기능할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프로바이러스가 생성한 RNA를 감싸는 외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객’이 필요하다. 목표 RNA에 렌티바이러스의 유전자들이 모두 삽입되어 있는 ㉔의 경우에는 ‘객’이 초기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도 프로바이러스를 토대로 생성된 RNA로부터 ‘객’이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X가 ‘엔브’일 때 형질 도입이 일어날 뿐 아니라 외피가 형성되어 프로바이러스가 생성한 RNA를 감쌀 수 있다.

[오답풀이] ① X가 ‘엔브’일 때 ‘폴’에 의해 만들어진 목표 DNA가 핵 안으로 진입하여 환자의 DNA에 형질 도입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로바이러스 상태가 된 목표 DNA로부터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② ‘폴’에 의해 목표 RNA로부터 한 사슬의 목표 DNA가 생성되고, 다시 ‘폴’에 의해 이와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슬이 추가로 생성되어 이중 사슬 목표 DNA가 생성된다. 따라서 염기 서열을 토대로 또 다른 염기 서열을 만드는 ‘폴’의 작용은 두 차례만 나타날 것이고, 이는 함께 투입된 X의 종류와 무관하다. ④ 목표 RNA가 목표 DNA로 역전사하여 하나의 사슬로 이루어진 cDNA를 만드는 과정에는 ‘폴’이 관여한다. 따라서 X가 ‘객’일 때, ‘폴’의 작용에 의해 cDNA가 만들어질 수 있다. ⑤ 이중 사슬 cDNA가 세포의 핵 안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엔브’가 관여한다. 따라서 X가 ‘객’일 때 이중 사슬 cDNA가 생성되지만, ‘엔브’가 없으므로 핵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 결과 형질 도입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문맥상 가까운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만들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③에 쓰인 ‘만들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18 ~ 21]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정극인, 「상춘곡」(수능특강 268쪽)

→ 작가 연계 : 김시습, 「도중」(수능특강 122쪽)

18.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 표현되어 있는 늦가을은 ‘첫눈이 날리고 ‘나뭇잎은 거의 다’ 저 버린 쓸쓸한 분위기의 계절이다. 이러한 계절적 분위기는 ‘나그네’로 떠도는 화자의 외롭고 막막한 정서와 조응하고 있다. (‘외로운 기러기’를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먼 길 떠나야 하는 말’의 ‘머뭇거리’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막막한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나)의 새봄은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든 ‘도화 행화’와 ‘세우’를 맞아 더욱 푸른 ‘녹양방초’, 그리고 봄의 감흥을 억누르지 못해 즐겁게 지저귀는 ‘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계절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계절적 분위기는 자연 속에서 은근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의 ‘칼로 마름질했나 붓으로 그려 냈나/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는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이 주는 흥취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가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이 주는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가)의 ‘산이 멀어 하늘은 들판에 드리웠고/강이 아득하여 대지는 허공에 닿았네’는, 뒤에 이어지는 ‘먼 길 떠나야 하는 말’이 ‘머뭇거리’는 표현을 고려할 때, 하늘과 땅의 광막한 풍광을 통해 나그네인 화자의 막막한 심정을 환기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㉑은 해 질 녘에 멀리 날아가는 한 마리 ‘기러기’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환기하고 있고, ㉒은 수풀 속에서 우는 ‘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새봄의 흥취를 환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㉑의 ‘날아가고’는 문맥상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지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20.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는 ‘답청일랑 오늘’, ‘욕기일랑 내일’, ‘아침에 나물 뜯고’, ‘저녁에 낚시하세’와 같이 시간 표지와 행위를 결합한 표현을 열거하여 봄을 맞이한 화자의 들뜬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시간 표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나날이 계속 이어짐을 나타내는 것일 뿐, 시간의 흐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A]에서 ‘흥진’은 화자가 살고 있는 ‘산림’과 대비되는 세속을 가리키므로 청자인 ‘흥진에 묻힌 분네’는 화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화자는 이들에게 건네는 말을 통해 자연 속에서 자신이 누리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C]에서 청자인 ‘이웃들’은 화자가 ‘산수 구경’을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자신과 동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이들에게 ‘답청’, ‘욕기’, ‘나물 뜯기’, ‘낚시’와 같이 자연을 즐기는 행위를 함께 하자고 말을 건넬으로써 자신이 누리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산이 멀어 하늘은 들판에 드리웠고/강이 아득하여 대지는 허공에 닿았네’에 나타난 자연의 광막한 모습은 정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인 화자의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연을 정치 현실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공간으로 여기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불의한 정치 현실로 인해 세상을 등졌던 (가)가 세상 어디에서도 정착해 지낼 수 없는 작가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에도, (가)에서 자연이 평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산림’이 ‘한중진미’를 느끼는 곳으로 표현되는 것에서 자연을 정치 현실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공간으로 여기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가)는 ‘먼 길 떠나야 하는 말’이 선뜻 출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통해,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망설이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는 세상 어디에도 마음 편히 정착할 수 없어 방랑을 계속해야 하는 작가의 고뇌를 암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2 ~ 26] 현대소설-시나리오 통합

→ 작가 연계 : 황석영, 「객지」 | 황석영 원작, 유동훈 각색, 「삼포 가는 길」(수능완성 172쪽)

22. [출제의도] 구절과 발화의 서술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제방 위로 기어오르는 동혁의 움직임에 담고 있으므로 인물의 움직임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제방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는 인물의 적극적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동혁은 사람들이 퀘도차 주변에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데도 그리로 가지 않고 폐유로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지문의 상황은 크게 보아 장 씨, 대위, 목 씨 등이 있는 제방 위와 동혁이 있는 제방 아래로 나뉘어 있다. ㉑은 제방 위에서 큰 돌을 움직이려는 장 씨, 대위, 목 씨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② 서술자는 비명을 지른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술하지 않은 채 ‘고통에 찬 비명 소리가 들렸고’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비명을 지른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대한 독자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③ ㉔은 동혁의 시각에 초점을 맞춘 서술로, 시야가 제한되었기에 제방 위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역시 제한된 제방 아래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목 씨는 동혁에게 ‘뼈가 그냥 부러져도 아물어 자리가 잡히려면 두 달이 족히 걸린다네. 더구나 나는 무릎이 부서졌다는군. 앞길에 막막해서 고연시리 심란헌 생각만 나잖는가?’라며, ‘어차피 노동일은 다해 먹었네. 늙마에 타관에서 이 꼴이 되고 보니…….’라고 말했다. 부상의 정도로 보아 더 이상 공사판에서 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오답풀이] ④, ⑤ 목 씨는 회사에서 자신을 독립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회사가 목 씨를 독립 병원이 아닌 무료 진료소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동혁으로, 이 점에서 동혁이 목 씨를 끝까지 안심시키려 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발화의 맥락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정 씨는 노인에게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㉑가 정 씨의 요청에 부응하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노인이 ㉒와 같이 말한 것은, 고향을 떠난 지 십 년이 되었지만 자신은 삼포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정 씨의 말에 대해, 지금 세상은 십 년이 아니라 일 년만 지나도 크게 변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굴러오는 돌을 피해 물로 뛰어든 동혁은 제방 위에서 ‘어디 다쳤나?’, ‘움직일 수 있소?’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자, 그것을 자신에게 묻는 소리로 착각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한 뒤 ㉓와 같이 답했다. ② (나)에서 노인은 정 씨가 자신이 내린 곳을 삼포라고 여기지 않으며 차장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을 걸고 있으며, ㉔와 같이 말한 뒤에 ‘바로 여기가 삼포요!’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㉕는 정 씨가 상황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시나리오의 연출 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의 마지막 부분에는 ‘즐거운 음악과 함께 이상의 장면(정 씨의 상상 속 장면)이 차 안의 정 씨 장면과 적당히 몽타주되고, 음악 더욱 고조되면서 버스가 계속 달리고 부푼 정 씨의 얼굴이 함께 달린다.’라고 되어 있다. 정 씨의 상상 속 장면들이 보이는 사이사이 차 안에 있는 정 씨의 모습을 담은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정 씨가 차를 타고 달리면서 즐거운 상상에 젖은 상황을 표현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즐거운 음악이 들리다가 점점 고조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정 씨의 상상 속 장면과 버스 안의 정 씨 모습을 담은 장면에서 동일한 음악이 연속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버스 안에서 정 씨가 영달에게 ‘뭐라고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는 장면과 ‘영달은 잠들어 있는’ 장면 사이에 버스가 달리는 장면을 삽입하여 보여 준다면, 정 씨가 영달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경과해서 영달이 잠들어 있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지문에 따르면, 자신이 도착한 곳이 삼포라는 사실을 확인한 정 씨는 ‘눈빛’이 ‘이미 정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고향의 변화로 인해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진 것이다. 언덕 위의 ‘호텔’과 사방의 ‘공사판’ 등은 정 씨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이므로, 이 풍경들을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화면으로 제시할 경우 정 씨가 받은 충격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6.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바다 위의 대교’는 근대화로 인해 교통망의 확충이라는 편익이 생겼음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지만, ‘만선의 깃발을 올리며 돌아오는 고깃배’는 근대화 사업의 긍정적 측면

과 무관하다. 이 ‘고깃배’는 고향에 대한 정 씨의 상상 속에 등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대화되기 이전 고향의 모습에 속한 것이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③ (가)는 우울한 대화를 하던 동혁과 목 씨가 ‘낙숫물이 마당에 권 물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한참이나 내다보’는 상황을 나타내면서, ‘도랑을 흘러내려 가는 물소리가 더욱 고즈넉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는 서술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묘사는 기델 곳 없는 노동자들의 초라하고 서글픈 처지를 감각적으로 환기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정 씨는 ‘완전히 도시가 된’ 고향 삼포의 풍경을 맞닥뜨려 혼란에 빠진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다. 정 씨에게 옛 모습을 잃은 현재의 삼포는 고향이지만 고향이 아닌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근대화로 인해 전통적 삶의 모습이 사라진 상황을 고향 상실의 상황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7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수능특강 82쪽)

➔ 작가 연계 : 문태준, 「극빈」(수능특강 323쪽)

27.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열무꽃이 핀 밭에 나비가 내려앉는 모습을 초점화하여 묘사하면서, 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나 ‘가녀린 밭’, ‘바람을 잠재우고/편편하게 앉아 있는’,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등에서 화자의 주관적 인상이 나타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28. [출제의도]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㉑(‘느슨한 시간’)은 시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처럼 나타난 표현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의식하는 시간(‘3초’, ‘5초’라는 짧은 시간)과는 다른, 나비(‘그네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시간의 길이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밤비’는 ‘밤’이 환기하는 어둠의 시각적 이미지와 ‘비’가 환기하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남의 나라’에서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뇌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땀내와 사랑 내’라는 시구는 구체적 대상인 ‘땀’과 관념적 대상인 ‘사랑’을 뉘네라는 후각적 이미지로 연결한 표현으로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깊은 애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9.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가 자신에 대해 시인으로서 현실의 불의함을 느끼면서도 그러한 의식을 글로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는 시구는 현실의 불의함을 글로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인’에 대한 그러한 인식 속에서도 화자가 ‘한 줄 시를 적’는 것에 대해, 비극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불의한 현실에 치열하게 맞서고자 하는 시인의 내

면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시에서 화자는 ‘시인’으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그 너머의 어떤 일을 하겠다는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④ 화자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는 자신의 내향적인 삶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한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홀로 침전’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과 무관한 내향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는 무얼 바라/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에는 자신의 그러한 내향적인 삶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이 작품에서 시인이 반성적 성찰 끝에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제시하여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몬다는 것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 내는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 하는 태도를, ‘최후의 나’는 반성적 성찰 끝에 도출한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의 모습은 현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하는 시인의 지향을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부 정보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게을러’서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쳤다’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 화자가 열무꽃에 내려앉은 나비들을 보게 된 것은 열무의 수확 시기를 놓쳐서 벌어진 결과일 뿐이다. 화자는 ‘흰 열무꽃’에 내려앉아 ‘선잠’을 자는 ‘나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일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느낀 바를 말하지만, 이는 우연한 경험에서 얻게 된 통찰을 나타내는 것일 뿐, 화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실용적 가치와 무관한 꽃을 길러 낸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열무를 키워 수확하는 것이 뿌리와 줄기이지 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꽃’을 ‘가까스로(= 애를 써서 매우 힘들게, 겨우 빠듯하게.)’ ‘얻었다’라는 표현은, 물질적 가치와는 무관한 꽃을 의미 있게 여기는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다른 이를 위해 ‘밭 딛고 쉬라고 내줄 곳’과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말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했던 삶을 성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열무를 심었는데 열무꽃밖에 얻지 못하게 된 화자는 이제 그 꽃이 나비들의 휴식처가 됨으로 인해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셈이 되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통해 베푸는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꽃마저 잃’은 상황을 ‘비로소’라는 말로 수식한 것을 통해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화자의 이러한 태도는 남에게 베풀므로 인해 삶이 오히려 충만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31 ~ 34]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김만중, 「사씨남정기」(수능특강 239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아가 나로 말미암아 생사를 알지 못하니 비참한 마음이 골수에 박혔는지라’라는 유 시랑의 말에서, 인아를 잃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사 씨는 ‘세월이 오래니 비록 보아도 능히 알지 못할까 하노라’라는 말로, 인아를 만나도 알아볼 자신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나 생각에 나타난 의미와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지금은 전일과 크게 다르니’라는 말은 (첩을 듣는 일에 대해) ‘천거를 그릇하여 상공 집안의 일을 그르’켰던 ‘전일’과 현재가 다르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의 ‘내 젊었을 적에 일을 많이 겪지 못하여 교 씨에게 속은 바 되었거니와’라는 말에도 이제는 많은 일을 겪은 뒤이니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일 덕성과 아름다움이 화용현 임 씨 같은즉 어찌 일호나 의심이 있으리오’라는 말에도 과거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이 [B]에는 없고 [A]에만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의 ‘어찌 한 번 목이 메었다 하여 밥을 폐하오리이까’라는 말은, 한 번 안 좋은 상황을 겪었다고 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자신이 제안하는 일(후사를 잇기 위해 집안에 첩을 듣는 일)의 정당성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A]와 달리 [B]는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집안에 첩을 들여 후사를 잇는 일)과 관련하여 ‘임 씨’라는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3.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후사를 잇지 못할지언정 다시는 집안에 교 씨 같은 사람을 들이지 않겠다는 말로, 지문의 맥락에서는 첩을 들이자는 사 씨의 제안을 거절하는 말이다. 첩을 들이기 전에 그의 인품을 살피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에서 ‘사당(= 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집.)에 오르면 다만 두 사람의 몸뿐(자식 없는 부부뿐)이라’ ‘참괴하’다고 한 것은, 집안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어 조상을 대하기 죄스럽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③ ㉡은 첩을 들여 후사를 잇자는 사 씨의 제안을 이미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사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다시 거절하기 위해 한 말이다. ‘아직은 의논치 말’자는 말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거절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은 교 씨로 인해 자신이 화를 입었던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첩을 들인 일로 고난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상대방에게 환기시켜 주는 말이다. (참고로, 이는 그런 일을 겪은 자신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첩을 들이자는 말을 하겠느냐는 뜻으로 한 말이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계집종은 ‘임 씨의 어린 동생 용모가 마치 인아

공자 같’다고 하면서도 ‘그 계모가 낳은 바라하’여 다시 묻지 않았다고 했다. 즉, 계집종은 임 씨의 동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시랑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임 씨의 동생이 인아가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확신을 사 씨에게 드러낸 것은 아니다. 또한 사 씨가 계집종의 확신에 찬 말에도 불구하고 임 씨의 동생이 인아임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다. (참고로, 계집종의 말을 들은 사 씨는 ‘인아가 생사 간 북방에 있을’ 것이기에 ‘이곳에’ 있을 리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임 씨의 동생이 인아일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독자는 예상 밖의 상황에서 인물들이 맞이할 극적인 상봉 장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③ 계집종은 ‘임 씨의 어린 동생’의 용모와 나이가 인아와 같다고 하면서 ‘만일 언어 길렀사오면(즉, 양자로 들인 것이면) (인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없지 아니할 것이오되, 그 계모가 낳은 바라 하오니 다시 물을 말씀이 없더이다’라고 했다. 즉, 임 씨의 동생이 계모가 낳은 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가 인아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 씨가 어린 남동생을 계모의 양자가 아니라 계모가 낳은 아이라고 말한 것은, 사 씨가 임 씨의 남동생이 인아인 것을 알아보는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임 씨는 계집종이 전에 찾아왔을 때 남동생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전일 남자 왔을 때는 마침 나가 있었기로 보지 못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부재의 상황은 임 씨에게 인아를 닮은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사 씨에게 뒤늦게 알려지게 된 사정에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63쪽

35. [출제의도] 라디오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진행자는 ‘사연을 읽으니 ~ 감수해야 했거든요’라고 사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 바람에서 이 사연을 선정했으니’라고 사연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36. [출제의도] 라디오 방송에 반영된 방송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진행자는 근로 계약서의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빠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는 ‘□□님은 ~ 질문해 주셨는데요.’라고 사연에 담긴 질문을 다시 언급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법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제시하였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 근로 계약서에 포함되는 필수 항목들을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④ 진행자는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받’

는다고 청소년과 성인의 최저 임금이 동일함을 안내하고 있다. ⑤ 최저 임금이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갱신’된다고 설명하며, ‘올해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라디오 방송을 들은 청취자의 반응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청취자 4’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례를 언급한 뒤, 이를 방송에서 알려 주지 않은 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에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8 ~ 42] 작문 - 화법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23쪽

38. [출제의도] 기사에 활용된 글쓰기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1문단 마지막에서 ‘그렇다면 ~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라고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중심 화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9. [출제의도] 기사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5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영상 제작 및 공유 활동에 참여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영상 제작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첫째 문장에서 제시하였다. ② 2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제시하였다. ③ 3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제시하였다. ④ 4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제시하였다.

40.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E]의 ‘학생 2’의 발화에서 상대의 말을 재진술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학생 2’는 ‘학생 3’에게 글에 청소년의 영상 제작과 공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담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대화 맥락을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최신의 자료인지 판단할 수 없겠’다는 ‘학생 3’의 발화와 ㉠에서 설문 조사의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에 들어갈 말로 ㉡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출제의도] 대화의 논의 내용이 반영된 고쳐 쓰기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 지역 문화 센터의 영상 제작실에 대한 내용의 삭제가 필요한 것 같’다는 ‘학생 1’의 의견을 반영한 고쳐 쓰기 계획인 ㉤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나)에 따르면 제목은 청소년의 영상 제작 및 공유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영상 제작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드러나 있다. ② (나)에 따르면 1문단에 우리 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영상 시청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추가해야 한

다. 청소년이 영상 시청을 즐기는 이유에 대한 통계가 추가될 필요는 없다. ④(나)에 따르면 '영상 관련 분야로의 진로 탐색'은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 탐색'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영상을 제외한 분야로의 진로 탐색'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3~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32쪽

43. [출제의도]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나)의 1문단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학교 공간이 어수선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화되었다. 1문단에서 인용한 학생들의 인터뷰 답변은 '청소를 하지 않는 이유'이지 '우리 학교에서 특히 청소가 필요한 공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44. [출제의도] 조언을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마지막 문단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지 편집부장은 마지막 문단에 초고에서 언급한 청소하기의 효과를 모두 요약하여 밝히고, 학생들에게 청소를 직접 실천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반영하여 '몸과 정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집중력도 향상시켜 주는' 청소의 효과 세 가지를 모두 요약하여 밝히고, 학생들에게 '잠깐 짬을 내어 주변을 청소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며 청소를 권유하고 있는 ㉡가 가장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 2'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시야에 들어오는 대상들을 무의식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시야에 들어오는 많은 대상들 각각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변함없으므로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답풀이] ④ '자료 2'에 따르면 시야에 물건들이 많으면 대상들을 해석하여 판단하려는 과정을 반복하느라 뇌가 쉽게 피로해지고 인지적 기능도 저하된다. 그러므로 청소를 통해 시야에 들어오는 대상들을 줄이면 뇌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4문단에 보충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39] 언어

35. [출제의도] 지문에서 제시된 높임 표현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02쪽

'할머니는 방금 댁에서 출발하셨다.'에서 '댁'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어휘이다. '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틈에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다.'의 '댁'도 주체인 '(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높이기 위해 쓰인 어휘이다. 두 문장에서 '댁'이 모두 주체를 높이는 데 쓰이고 있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앞 문장의 '춘추'는 주체인 '어르신'을 높이기 위해, 뒤 문장의 '춘추'는 객체인 '어르신'을 높이기 위해 쓰인 어휘이다. ② 앞 문장의 '성함'은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뒤 문장의 '성함'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쓰인 어휘이다. ⑤ 앞 문장에서는 선어말 어미 '-삽-'과 어휘 '소자'를 사용해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고 있다. 뒤 문장에서는 선어말 어미 '-사오-'과 어휘 '소신'을 사용해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고 있다.

36. [출제의도] 높임 표현에 실현된 문법적 요소와 어휘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02쪽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에서는 조사 '께서', 어휘 '주무시다'와 '계시다'를 활용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보조사 '요'를 통해 상대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② ㉡에서는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③ ㉢에서는 조사 '께'와 어휘 '여쭙다'를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⑤ ㉤에서는 조사 '께'와 어휘 '드리다'를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37. [출제의도] 국어의 자음 체계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91쪽

'신라[실라]'에서는 비음 'ㄴ'이 유음 'ㄹ'과 만나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조음 방법만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오답풀이] ③ '밭이[바치]'에서는 잇몸소리 'ㅌ'이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쉼입천장소리 'ㄷ'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④ '법학[버팍]'에서는 파열음의 예사소리 'ㅂ'이 마찰음 'ㅎ'과 합쳐져 파열음의 거센소리 'ㅃ'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 일어났다.

38. [출제의도] 형태소를 의미와 자립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5쪽

㉠에는 자립 형태소가, ㉡에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에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들어가야 한다.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은 용언의 어간뿐이다. 이에 따라, ㉡에 해당하는 예로 ㉠과 ㉢을 들 수 있다.

[오답풀이] ㉠의 '가'는 명사이므로 ㉠에, ㉡의 '지다'는 접사이므로 ㉢에, ㉢의 '달리'는 부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대명사 '므스'의 형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07쪽

'므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므스'로 나타났으므로 ㉠에는 '므스'가 들어가야 한다. '므스'는 부사격 조사 '과' 앞에서 '므슴'으로 나타났으므로 ㉡에는 '므슴'이 들어가야 한다. '므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므스'로 나타났으므로 ㉢에는 '므스'가 들어가야 한다.

[40~42] 매체 - 언어 통합

40. [출제의도] 인터넷 블로그 매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38쪽

<보기>에 따르면 학생은 (나)의 글 작성자가

안내한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나)에 제시된 하이퍼링크에 접속하면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용 글꼴'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글꼴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시의 대응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나)의 좌측에 주제별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은 '기사작성법'을 클릭하여 기사 작성하기 학습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④ <보기>에 따르면 학생은 (나)의 댓글로 궁금한 점(전문과 본문 작성 시 육하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을 물었고, 글 작성자는 이에 답변하여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 생산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메모 2'에 따르면 학생은 부제가 표제를 보충할 수 있다는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심폐 소생술을 배워 뒤야'라는 부제를 작성해 표제를 구체화하였다. (나)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전문과 본문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쓰인 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38쪽

학교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중 앞서 제시한 측면과 다른 측면에 관해 언급하기 위해 ㉠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는 다른 화제를 다룰 것임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43~45] 매체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58쪽

43. [출제의도] 서로 다른 매체 각각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화면을 통해 구조된 '어린 직박구리'를 보여 주면서 '어린 야생 동물 구조는 신중해야'라는 자막을 결합해 뉴스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휴대 전화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진 의사소통 방식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나라'는 한글 자음자 기호('ㅇㅇ')를 활용하여 카드 뉴스 제작과 관련한 '지원'의 제안에 호응하면서 자신이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정리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45. [출제의도] 카드 뉴스 초안의 제작 과정에서 반영된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나라'는 어린 야생 동물의 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려 주려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카드 뉴스 초안'에서는 셋째 카드에 표를 활용하여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어린 야생 동물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표를 활용해 구분 지어 보여 주는 ㉢의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